

국토·도시계획 부문의 최근 연구동향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지난 몇 년간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의 핫이슈는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북미회담이 진행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자들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하는 논문들 역시 이러한 시대 조류의 흐름을 벗어나기 힘들다.

국토 및 도시계획 부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국토계획」(이하 학회지)에 발표된 지난 5년간의 논문을 검토하였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은 모두 497편으로 1년에 100여 편 정도의 연구논문이 발표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해외도시수출과 통일이라는 특집호가 편성되었던 2014년도에 131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8년 작년에는 모두 78편의 논문이 발간되었다.

분류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학회지의 전통적인 분류기준에다 최근 유행을 감안하여 31개로 연구논문 주제를 대분류하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교통분야로 전체 발표 논문 중 11.7%를 구성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 분야를 교통분야에 포함시킨다면, 교통분야를 연구 주제로 한 논문은 전체 발표논문의 15%를 차지하게 된다. 국토·도시계획분야의 핵심 연구 분야가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이라면 상대적으로 토지이용분야의 비중은 전체 발표논문의 3% 내외로 교통계획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1_ 「국토계획」지의 지난 5년간 발표 논문 주제 분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비율(%)
교통	14	6	11	16	11	58	11.7
환경	12	13	9	5	9	48	9.7
재생	9	9	8	6	9	41	8.2
도시설계	8	5	10	7	5	35	7.0
주택	9	6	2	6	10	33	6.6
산업	9	3	7	3		22	4.4
지역개발	4	5	5	5	3	22	4.4
공간구조	4	8	4	1	3	20	4.0
도시정책	6	5	1	7	1	20	4.0
안전	7	2	4	2	1	16	3.2
상권분석	4	3	5	1	2	15	3.0
역세권	5	4	5		1	15	3.0
주거	3	3	2	4	3	15	3.0
토지이용	2	4	2	3	4	15	3.0
4차 산업혁명	2	1	2	5	4	14	2.8
방재	3	2	4	3	2	14	2.8
도시개발	9	3				12	2.4
부동산	3	4	4		1	12	2.4
재개발·재건축	4	2	2	3	1	12	2.4
인구이동	4	3			4	11	2.2
문화재	2	5		2		9	1.8
주민참여	1		2	5	1	9	1.8
시설입지	2	1	1	2	1	7	1.4
경관		2	2	1	1	6	1.2
공원녹지	2	2				4	0.8
건설	3					3	0.6
국토		3				3	0.6
사회적 통합				2		2	0.4
회복탄력성		1			1	2	0.4
계획이론		1				1	0.2
농촌계획			1			1	0.2
총합계	131	106	93	89	78	497	100.0

분류기준을 국토와 도시분야로 더 크게 나누어본다면, 거의 대부분 도시분야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국토분야의 경우 2014년 통일 특집호에 실린 ‘북한의 수도계획’, ‘통일 이후 철도시스템 기반의 도시공간재편전략에 관한 사례 비교연구’, ‘국가 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등 3편에 불과하다. 좀 더 외연을 넓혀 지역개발분야를 국토분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지난 5년간 전체 발표 논문의 5%에 불과해 최근 국토·도시계획 부문의 연구 대부분이 도시에 머물러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교통분야 다음으로는 환경, 도시재생, 도시설계, 주택, 산업, 지역개발, 공간구조, 도시정책, 안전, 상권분석, 역세권, 주거, 토지이용, 4차 산업혁명, 도시방재, 도시개발,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인구이동의 순서로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논문들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도시안전, 산업, 공간구조, 상권분석, 역세권, 도시개발,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공원녹지, 건설분야의 경우 발표논문건수에서 하향추세를 보이며, 주택, 주거,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개발, 도시정비 부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주택이나 주거, 4차 산업혁명을 소재로 한 연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살필 수 있다.

주거부문 논문들의 구체적인 주제들을 살펴보면, 주로 주거이동과 주거선택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거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2편으로 비중이 작다. 주택부문의 연구는 주택시장분석 연구가 대부분이며, 일부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에 대한 연구논문도 발표되었다. 주택시장분석은 논문주제를 61개로 중분류하였을 때 가장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된 분야로 이 주제가 연구자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분야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앞서 언급한 주택시장분석에 이어 교통수요, 지역개발정책, 도시재생, 공간구조, 도시정책, 기후변화, 보행, 근린환경, 도시환경, 상권분석, 역세권, 토지이용규제, 교통안전, 도시방재, 산업기업입지의 순으로 발표논문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토·도시계획분야에 있어 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 또는 수요분석 분야의 논문편수가 앞서고, 계획수립 이후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논문들이 뒤를 잇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_ 중분류 기준 상위 16개 연구논문 분야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주택시장분석	8	4	1	4	9	26
교통수요	7	1	6	7	3	24
지역개발정책	4	5	5	5	3	22
도시재생	7	4	5	3	2	21
공간구조	4	8	4	1	3	20
도시정책	6	4	1	7	1	19
도시환경_기후변화	2	4	6	2	4	18
도시설계_보행	6	2	6	1	1	16
도시설계_근린환경	1	3	3	5	3	15
도시환경	7	4		2	2	15
상권분석	4	3	5	1	2	15
역세권	5	4	5		1	15
토지이용규제	2	4	2	3	4	15
교통안전	2	2	2	6	2	14
도시방재	3	2	4	3	2	14
산업기업입지	3	2	6	3		14

중분류 기준으로 연구논문편수가 작은,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논문주제들을 보면, 국토·도시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 이슈를 살펴볼 수 있다. 지난 5년간 5편 이하의 연구논문이 발표된 부문으로 미세먼지, 범죄, 자전거, 드론, 사회적 통합, 회복성(리질리언스), ICTs 데이터마이닝, 삶의 질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로 스마트시티(4편), 빅데이터(3편), 드론(2편), 데이터마이닝(1편), ICTs(1편) 등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용에 주목한 공유도시, 포용도시에 대한 연구논문도 3편에 달해 연구자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5년간 학회지에 발표된 497편의 논문 주제를 보면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의 최근 연구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의 전통적인 연구분야인 토지이용과 공간구조, 교통계획과 도시설계 분야의 연구가 아직 주류

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 주택이나 주거선택, 교통수요나 도시 재생분야의 연구가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살필 수 있다. 거시적인 국토계획분야의 연구가 줄었으며, 미시적인 시장수요분석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시민들의 일상을 둘러싼 주택시장분석, 교통수요분석, 미세먼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도시계획분야의 연구가 더욱 미시화, 정교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